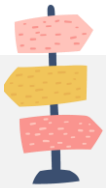

2022 EMERiCs·AIF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아세안 권역

미얀마 '신뿌'를 아시나요?

유영수

황금의 땅 또는 미소의 나라로 불리는 미얀마(버마)는 전 국민의 80%가 불교신자로 독실한 불교 국가입니다. 미얀마를 여행하다 보면 어디를 가나 불교 사원과 탑을 볼 수 있습니다. 사원과 탑을 황금색으로 칠하다 보니 황금의 땅이라는 별칭을 얻었나 봅니다.

미얀마는 불교국가 답게 사원과 승려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신뿌(Shinpyu, 사미출가)'라는 독특한 의식이 있습니다. 음력 6월 보름에 미얀마 전역에서 '신뿌'가 치러지며 꼭 이 때뿐만 아니라 연중행사로 치러집니다. 날씨가 선선해 지는 건기인 1월에서 3월에도 많이 치러집니다.

'신뿌'는 출가 체험 행사로 미얀마 미성년 남자들이 단기간 승가에 출가(스님이 되는)하는 의식으로 짧게는 3-6개월, 길게는 몇 년 정도 머리를 깎고 승려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얀마 남자들은 반드시 한번은 출가를 해야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병역의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사미출가자가 있는 마을은 출가 3일전부터 대대적으로 마을사람 전부가 행사 준비에 들어가 온갖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준비 합니다. 일종의 공동체 축제로 집집마다 작은 선물과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주변 동네 어른들과 스님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빈부 격차가 심한 미얀마에서 '신뿌' 행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근심거리이기도 합니다. 보통 행사가 짧게는 2박3일에서 길게는 1주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 동네 주민들이 서로 상부상조 하기는 하지만 초청한 스님이나 귀빈들에게 선물, 촌지 비용과 행사기간 동안 동원된 가수, 공연단과 동네 주민들의 식사 경비는 온전히 당사자 몫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소하게 하면 최소 400만K(짯, 한화 약 150-200만원), 성대하게 하면 1,000만K(약 400만원)이상이 지출된다고 합니다. 현지 대졸자 월급이 약 20만K(짯)내외인 걸 생각하면 현지 일반 주민들에게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가난한 부모는 자식의 '신뿌' 의식을 성대하게 치루고 싶어도 현실이 녹녹치 않아서 이 의식을 생략하고 마음 아파하는 가정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2021년 2월1일 일어난 군부 쿠데타는 가뜩이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서민들은 미얀마

의 오랜 전통이자 자랑인 대표적 공동체 행사인 '신뷰'마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신뷰' 의식은 보통 2박3일 진행이 되는데 행사 내용을 보면 전통 춤과 노래로 온 마을을 축제 분위기로 만들고 스님들이 불경을 낭송하고 맛있는 음식을 스님들께 공양 올립니다. 동네 주민들은 십시일반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며 출가자를 축하합니다. '신뷰' 의식의 하이라이트는 출가자가 삭발을 하고 스님이 가사를 내려주는 의식으로 마무리 됩니다.

'신뷰' 기간에는 부처님이 출가 전 왕자 신분이었던 상황을 재현해서 가마를 타고 사원을 돌며, 일반 동네 주민들은 깔끔하고 예쁜 옷과 여성들은 정성껏 치장을 하고 불경을 머리에 이고 사원과 탑을 도는 의식이 진행이 됩니다. 이 기간에는 24시간 동네 확성기로 불경을 낭송해서 여행자가 느끼기에는 여간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동네에서는 악단을 동원해서 동네 주민들이 한 줄로 동네 큰길을 도보 행진하기도 하며 확성기에서 나오는 커다란 음악은 소음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일생에서 제일 소중하고 귀한 행사라 외국인 여행자지만 함께 축하해주고 동참하면 많은 환영을 받습니다.

미얀마를 여행하면서 남부에서 북부까지 다양한 '신뷰' 의식을 구경하고 때로는 동참해서 축하해주었습니다. 불교국가라 내 종교와 무관하게 그들의 종교와 문화, 전통을 존중해주고 동참하면 격한 환영과 맛있는 음식을 제공받는 신나는 경험을 하시리라 예상됩니다.

온 동네 주민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있다

동네 주민들이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있다

지방 소도시에서 만난 유럽 젊은 여행자와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면, 오스트리아에서 여행 온 당시 27살 남성 동갑 고교친구인 두 친구와 여행 중 같은 숙소에 머물면서 며칠 여행을 같이 하기로 의기투합하여 다음날 숙소 근처 유명 여행지로 같이 여행을 갔습니다. 불교유적지를 둘러보고 있는데 이 두 친구가 불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어서 기도가 끝난 후에 혹시 종교가 불교냐고 물어 봤더니 본인들 종교는 둘 다 가톨릭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종교도 다른데 왜 그렇게 불상 앞에서 기도를 했냐고 물었더니 "종교는 다르지만 미얀마는 불교국가고 지금 사원을 방문했으니 불상 앞에서 현지인들과 동일하게 기도하는 것은 이곳의 문화를 존중한 당연한 행동이다"라고 대답하더군요. 이 두 친구와 며칠 같이 여행하면서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많이 배웠습니다.

미얀마에서 사미출가는 한집안의 경사이자 그 지역 사회의 기쁨으로 다 함께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줍니다. 그만큼 승려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과 지위가 대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스님들은 차를 탈 때 버스의 경우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승용차일 경우 조수석이 상석으로 스님 자리입니다. 또한 스님들이 타는 차에는 본네트 앞에 불교 깃발을 달고 다니는데 이 깃발을 단 차는 우선 통행이나 교통경찰관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을 정도로 미얀마에서 스님의 사회적 위치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가 국교인 미얀마를 여행할 때는 나의 종교와 상관없이 스님이나 사원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여행 중 '신뿌'의식을 만나게 된다면 함께 동참해서 축하해주는 멋진 경험을 하시길 추천합니다.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